

“그때였다. 내부 섬광으로부터 발광하는 라디오를 목격한다. 그는 재빠르게 검은말을 타고 흐르는, 흩어지는 메아리 속에 몸을 맡겼다. 공간은 수직 이동을 하며 오르간 파이프의 선율을 그린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의 절반의 웃도, 절반의 도장도 여기서는 아무런 슬모가 없었다.”(차혜림, <교환 X로서의 세계>)

전시장에 놓인 사물들의 존재감이 늘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것은 차혜림이 재능있는 글쓰기꾼이라는 것이다. 작가는 항상 전시장의 사물들과 함께 '스토리'를 써왔으며, 그가 쓰는 글은 사실상 작업의 출발점이 되어왔다. 이 스토리는 <교환 X로서의 세계>(2011)처럼 소설의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그렇지 않아도 항상 어떤 상상적 설정을 갖는다. 비슷한 등장인물과 설정들이 조금씩 변주되면서 전체적으로 연결고리를 갖는 이 스토리들은 수수께끼 같은 감각들,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과 사물들이 등장하는 SF적 세계이다. 그런데 왜 차혜림은 이 '스토리들'을 작업의 전면에 배치하지 않고, 항상 감추어 놓는 것일까? 차혜림의 스토리에는 '3인'이라는 설정이 종종 등장한다. <중간 스토리>(2010)에는 여행하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했으며, <교환 X로서의 세계>를 위해서는 운석 사냥꾼, 클레리티, 블랙 호스라는 세 명의 등장인물을 고안했다. <디 아티팩트 : 알파벳 0층부터 z층까지 존재하는 artifact 목록들>(2022, 이하 '디 아티팩트')에서도 작가는 '한 몸에 업로드된 3개의 의식'을 일종의 게임 캐릭터로 설정하고,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며 발견한 사물들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물건들은 어떤 순간에도 스토리를 설명하는 사례로 사용되지 않는다. 사물들은 선반 위에, 그저 그 자리에 놓여 있다. '3인'이라는 설정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 설정은, 작가 자신이 사용하는 표현처럼, 사물들 편에서 보면 일종의 맥거핀이다.

차혜림이 만드는 사물들은 기묘하다. 이 기묘함은 이 사물들을 묘사하려는 시도가 난관에 부딪힐 때 잘 드러난다. <디 아티팩트>에 등장하는 사물들만이 아니라 이전 전시의 사물들, 예를 들어 <밤의 무기들>(2013)에 등장한, LED 등을 매단 채 여러 번 접힌 모양을 한 삼각형태, 점토로 만든 푸른색의 사물들, <Night Movers>(2021)에 나오는, 인조 모피와 네온이 부착된 불규칙한 모양의 상자 같은 형태들, 길쭉하거나 동그란 노랑고 검은 도형들, 구불구불한 보라색 형태 등...이렇게 불충분한 단어들을 통해 간신히 붙잡을 수 있을 뿐,



교환 X로서의 세계_잠원동 10-32번지_2011.12-2011.12.26



중간 스토리 paraxis:intermediate story_공간 해밀톤_2010.11.22-2010.11.27



밤의 무기들_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_2013.08.23-2013.09.14



Night Movers_디스이즈낫어처치(TINC)_2021.10.14-2021.10.27

더 이상 구체적인 언어로 이 사물들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들은 기존의 어떤 물건과도 닮지 않았다. 개 모양을 한 조각이나 주름을 잡아 굳힌 손수건, 망치나 구두 등 알아볼 수 있는 형상을 가진 사물들의 경우도 그 의미나 맥락을 알 수가 없다. 무엇을 암시하는 것도 아니고, 기호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의 상징이나 은유도 아닌 사물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작가의 스토리에 종종 등장하는 '운석'이나 '외계로부터 온 낯선 물체'가 아마 이 사물들과 그나마 가장 가까운 이름일 것이다. 인체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형태가 등장했던 전시 <나선운동악보>(2021)에서도 앞뒤 맥락은 철저히 삭제되어 있으며, 또한 완전히 추상적인 사물들이 수수께끼처럼 함께 등장한다. 차혜림의 사물들은 손쉬운 추측에서 벗어나 있으며, 한 발짝 떨어져 있고, 잡히지 않으며, 일탈해 있다. 그것들은 무대 앞에 있지만 무대 뒤에 있는 것처럼 존재한다. 스토리가 사라지고 사물들이 전면에 등장할 때, 사실은 무언가가 다시 사라진다. 차혜림의 사물들은 그 자체의 촉각적인 물성을 강하게 드러내거나 혹은 다른 어떤 레퍼런스가 함축되어 있는 은유적 사물이 아니다. 사물들은 물리적으로는 생생한 현존성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는, 말하자면, '사라지는' 사물들이다.

사물들의 사라짐 이면에는 스토리가 있다. 그러나 스토리도 어떤 인과적 맥락이나 의미론적 구성을 갖고 있지 않다. 단어들은 빛나지만, 거기서 어떤 내러티브가 짜 맞춰지지 않는다. 언어들은, 말하자면, 비물질적 차원에서 또 다른 사물들로 기능한다. 전시장의 사물들에서 스토리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한 까닭은, 스토리와 사물들이 서로를 설명하는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스토리들은 사물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혹은 그 앞에 있다. 마치 인물들이 사라지듯이, 스토리는 사물들 사이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스토리와 사물들이 서로 무관한 것은 아닌데, 그들은, 말하자면 서로의 부재를 채워주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것은 언어적인 것이 사라진 곳을 채우고, 언어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이 사라진 곳을 채운다. 세계의 설계자로서 작가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떤 전체적인 세계는 스토리와 사물로 '뜨개진다.' 사물들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에, 사물과 사물 사이를 연결하면서 의미를 상상할 수도 없다. 사물들은 어떤 전체의 일부이지만, 부분들의 조각을 다 맞추었다고 해서 전체가 생기지 않는다. 전체는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물들 사이의 연관성은,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작가가 열었던 지금까지의 전시들을 연결할 때 약간씩 드러난다. 비슷한 재질이나 형태가 변주되기 때문이다. 네온, 스티로폼, 드리운 장막과 같은 것들. 또한 어떤 작은 단위를 붙여서 전체를 만들었다가 불규칙하게 잘라낸 것 같은 형태들이 있다. 이러한 형태들은 <디 아티팩트>에서 집중적으로 관찰된다. 대칭적 형태도 아니고 단순히

불규칙한 형태도 아닌 사물들은 결합과 절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작가가 쓴 '스토리'에도, 내러티브는 없지만,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과, 이동하기 위해 스스로를 변형해야 하는 과정이 종종 등장한다. 마치 레고의 요철처럼, 사물들과 그 틈, 언어와 사물들 사이의 비대칭적 관계가 존재한다.

“세계의 엔트로피가 극대점으로 향해가고 있는, 닫혀 있는 시대에서, 스스로 엔트로피를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포스트 휴먼이 등장한다.” 작가는 이렇게 쓴다.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단독으로 움직이면서 상호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사라지는 스토리, 사라지는 사물들은 이 '엔트로피의 최소화'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사물들은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면서 자신을 숨기지만,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물들과 연결된다. 이 보이지 않는 곳은 엔트로피의 법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곳이다. 차혜림의 전시 제목에 '밤'이 연달아 등장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밤은 사물들의 연결 통로가 생겨나고 또 사라지는 은밀한 시간이다. 차혜림의 전시에는 종종, 사물들과 나란히, 그러나 사물들과 맥락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회화나 드로잉이 등장한다. <Night Movers>에서도 천장에서 바닥까지 늘어진 우레탄 비닐 위에 마커펜으로 그린 드로잉이 등장하는데, 예전의 회화 작업에서와 비슷하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대체로 단순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작업'은, 작가 자신이 분라쿠 인형을 조종하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언급한 것처럼, 마치 밤의 은밀한 그늘 속에서 사물들을 서로 연결하는 무대 뒤의 장면처럼 보인다.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는 밤의 시간은 언어의 시간이기도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일부가 아닌 다른 반으로 채워져 있던 조금 전의 미래가 떠올랐다.”(차혜림, <교환 X로서의 세계>). '자신의 일부가 아닌 다른 반', 이것이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사물과 이미지, 사물과 언어의 비대칭적 관계가 아닐까?

견고한 물성을 가진 사물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시장은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사물들은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면서', 의미의 그물망에서 달아나 숨는다. 이는 마치 <Night Movers>의 '스토리'에 나오는 '자발적 실종자'와도 비슷하다. 실종자는 자신이 사라진 곳에 사물들을 남긴다. (<나선운동악보>의 잠입자(stalker)는 이 사물들을 발견한다.) 존재하는 것과 부재하는 것의 이 숨바꼭질 놀이가 차혜림의 작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닐까?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은 서로가 결핍된 곳을 채우는 시소의 양편이다. 그렇게 한 쪽이 비워질 때 세계는 균형을 유지한다. 사라짐을 통해서 존재함을, 존재함을 통해서 사라짐을 드러내는 것은 일종의 마술이고, 마술과 같은 예술의 능력이다. 차혜림의 작업은 이 능력을 우리에게 최대한도로 보여준다.



나선운동악보_탈영역우정국_2021. 03. 12 - 2021. 03. 27